

2022-07-18 (2022-27호)

7월 18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유로발 변동성 경계... 예런 장관 방한·20일자 수출 주목

서울, 7월18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유로와 엔 움직임을 주목하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00~1,330원이다.

환율이 1,300원대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내주 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회의의 앞두고 달러가 호흡을 가다듬을 여지도 있는 만큼 달러/원 상승 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

여러 연준 인사가 7월 연준 회의에서 75bp 정책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다 미국 6월 소매판매와 소비자 심리지수 지표 등의 개선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달러/원 1,300원대에서 뚜렷한 저항선이 없는 점이 불안 요인이지만 견조한 단기 외화 자금시장 등을 고려하면 최근 환율 레벨이 오른 데 대한 파장은 제한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유로 행보가 원화 변동성을 자극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폭넓게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정책 기조에 따른 유로 반응이 글로벌 외환시장을 들쭉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CB 정책회의에 앞서 발표되는 6월 유럽 소비자물가와 경상수지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도 챙겨봐야 할 듯하다.

한편 유로존 에너지 위기 불안을 극대화시켰던 러시아의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21일 재가동할지도 큰 변수다. 유로 가치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숏 포지션도 대거 몰려 있어 이에 따른 시장 반향은 적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일본은행(BOJ) 정책회의도 예정돼 있다. 초완화 정책을 고수 중인 BOJ의 정책 결정에 따른 엔저 재개 여부와 강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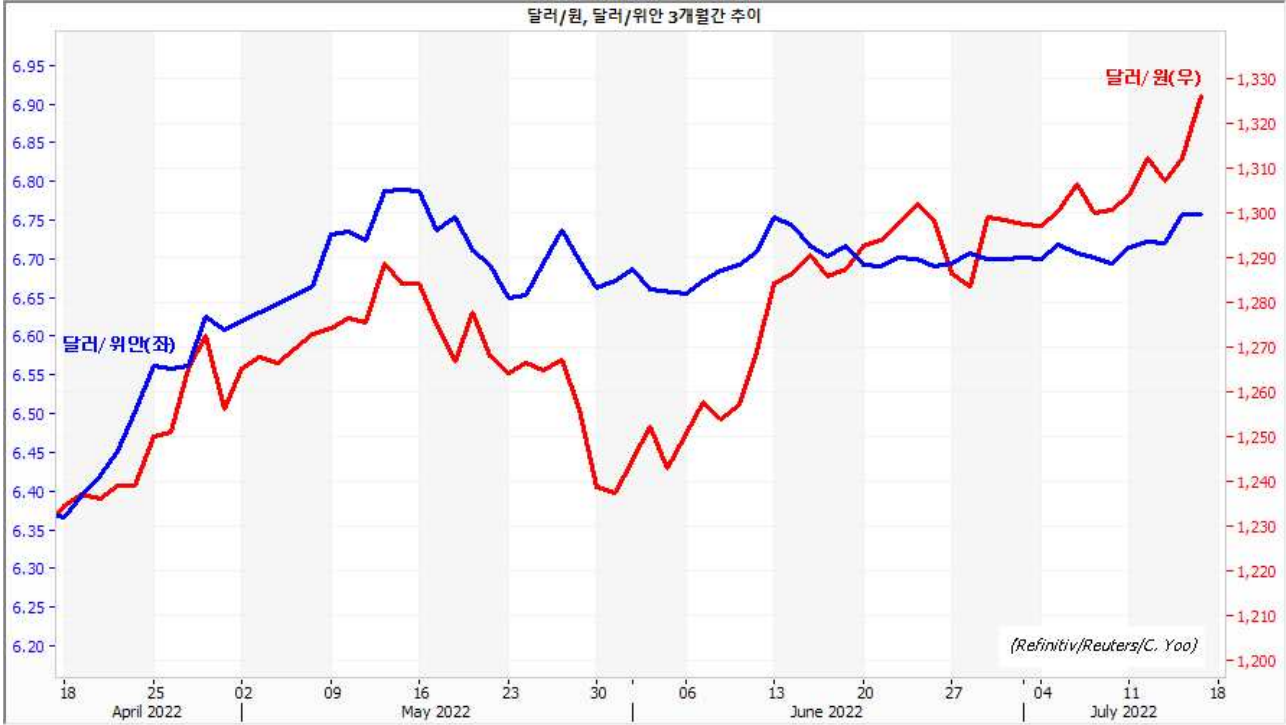
최근 원화는 글로벌 달러 기조와 거의 보폭을 같이 하고 있어 금주도 대외 여건 따라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주초에는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 방한에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 통화스왑은 연준의 권한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외환시장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2분기 기업실적 결과에 따른 증시 변동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국내 증시 분위기도 연동될 공산이 크다.

챙겨봐야 할 국내 지표로는 이달 20일 기준 수출입 현황과 무역수지(잠정치)가 있다.

달러/원의 양방향 리스크에 신경을 잔뜩 써야 할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달러/원, 달러/위안 3개월간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채권 주간 전망**

• **변동성 파도타기와 ECB**

서울, 7월18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주중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주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205%에 고시돼 전 주말(3.315%)보다 11bp 하락했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3.242%를 기록해 전 주말(3.36%)보다 11.8bp 떨어졌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 전망이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지만, 6월과는 다른 전개가 나타난 한 주였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와 리오프닝 기대감 확산을 반영하며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었던 6월과 달리 지금은 경기침체 우려로 유가가 90달러대까지 떨어졌다는 게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이미 경제 주체들의 감내 한계 수준까지 차 있다는 인식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듯하다. 9.1%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이어 6월 생산자물가가 11.3%로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연준의 매파 인사들은 7월 75bp 금리 인상 의지를 꺾지 않았다. 다만, 최근 금리 낙폭이 컸던 점, 휴가 시즌을 맞아 시장 유동성이 떨어지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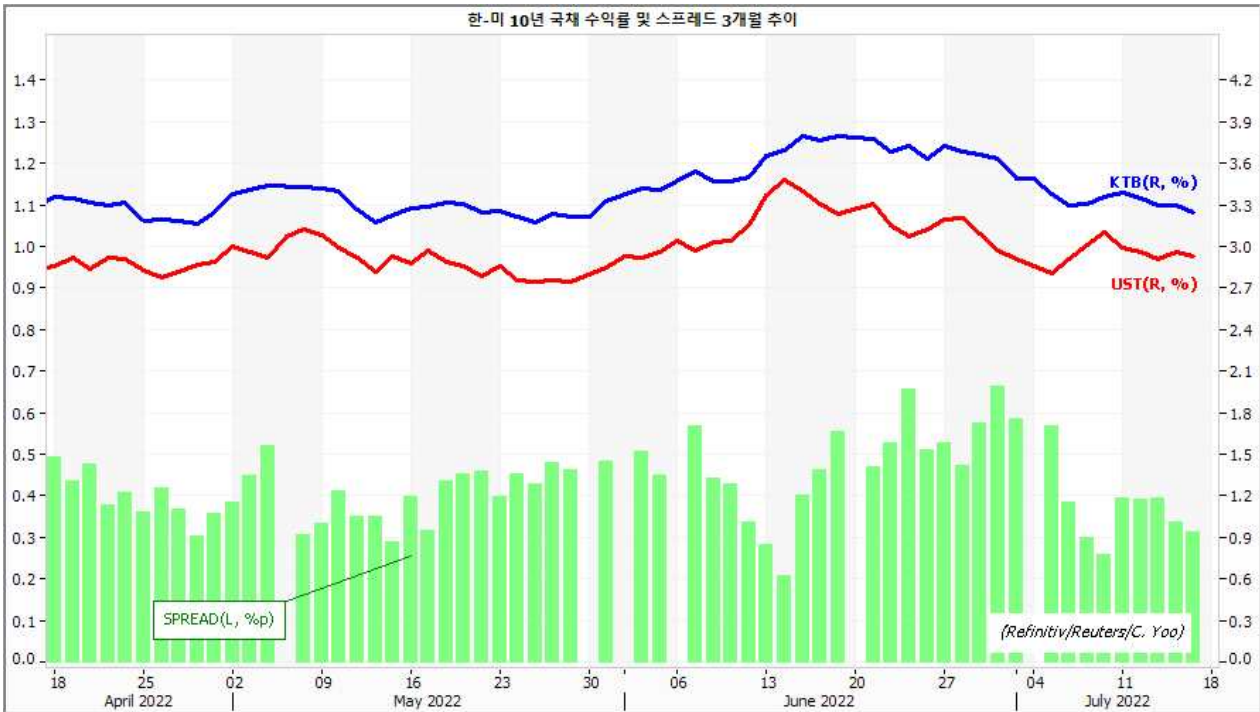
한번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채권시장을 짓누르고 있던 암울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되돌려지는 상황이지만, 달러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금리가 3.7%대일 때도 사지 못했는데 이제 레인지 하단으로 여겨졌던 3.2%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사겠다고 결정하는 건 절대 쉽지 않다.

여전히 외국인이 변수다. 정부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위한 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면제 조치의 파장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CB는 오는 21일 통화정책 회의를 진행한다. ECB가 지난달 회의에서 이미 25bp 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시장에선 50bp 인상 가능성도 회자되고 있다. ECB마저 공격적 통화 긴축 대열에 합류할지, 글로벌 국채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ECB의 통화정책 결정과 달러지수와의 연계성, 달러/원 환율 레벨까지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재료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 7월 경제 동향을 발표한다. 최근의 경기 둔화 조짐에 대한 정부의 평가가 주목된다.



※ 한-미 10년 국채 수익률 및 스프레드 3개월 추이

(편집 유춘식 기자)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일정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7월18일(일)

- ⊙ 특이 일정 없음

7월19일(화)

- ⊙ 통계청: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12: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반도체 인력양성 브리핑 참석 (15: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한·미 재무장관회의 (16:30)
- ⊙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배포시)

7월20일(수)

- ⊙ 기획재정부: 2022년 7월 최근 경제동향 (10:00)

7월21일(목)

- ⊙ 관세청: 7.1~20 수출입 현황
-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10:30)
- ⊙ 한국은행·통계청: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12:00)
- ⊙ 기획재정부: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16:00)
- ⊙ 기획재정부: '22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7월 발행 실적 (17:00)

7월22일(금)

- ⊙ 한국은행: 2022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 (06: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2차관 연기금 투자플 위원회 (10:00)
- ⊙ 금융감독원: 원장 임원회의 (10:00)
- ⊙ 한국은행: 2022년 6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 (12:00)

7월23일(토)

- ⊙ 특이일정 없음

7월24일(일)

- ⊙ 금융위원회: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12:00)
- ⊙ 기획재정부: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 결과 (15: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단위	이전수치
7월11~18일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6월		Percent	17.30%
7월18일	23:00	미국	NAHB 주택시장지수	7월		Index	67
7월19일	21:30	미국	건축허가	6월	1.690M	Number of	1.695M
7월19일	21:30	미국	주택착공	6월	1.586M	Number of	1.549M
7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1년	7월		Percent	3.70%
7월20일	10:15	중국	대출우대금리 5년	7월		Percent	4.45%
7월20일	18:00	유로존	경상수지	5월		EUR	-5.44B
7월20일	20:00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7월15일 주간		Index	300.0
7월20일	23:00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7월	-25.0	Net balance	-23.6
7월20일	23:00	미국	기존주택판매	6월	5.40M	Number of	5.41M
7월21일	08:50	일본	수출	6월		Percent	15.8%
7월21일	08:50	일본	수입	6월		Percent	48.9%
7월21일	08:50	일본	무역수지	6월		JPY	-2,385.8B
7월21일	21: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7월11일 주간		Person	244k
7월21일	21:30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7월		Index	-3.3
7월22일	08:30	일본	근원 CPI YY	6월		Percent	2.1%
7월22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7월		Index (diffusion)	52.7
7월22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서비스업 PMI 잠정치	7월		Index (diffusion)	54.0
7월22일	17:00	유로존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7월	51.0	Index (diffusion)	52.1
7월22일	17:00	유로존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7월	52.2	Index (diffusion)	53.0
7월22일	22:45	미국	S&P 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7월		Index (diffusion)	52.7
7월22일	22:45	미국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7월		Index (diffusion)	52.7

##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7월18일(일)

- ⊙ 휴장국가: 일본

7월19일(화)

- ⊙ 호주중앙은행(RBA), 7월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오전 10시30분)
- ⊙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맨션하우스 만찬 연설 (20일 오전 2시45분)
- ⊙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미니애폴리스 연은 인디언사회개발센터 주최 행사서 연설 (20일 오전 3시35분)

7월20일(수)

- ⊙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RBA) 총재, 호주전략비즈니스포럼 연설 (오전 8시10분)
- ⊙ BOJ, 통화정책회의 (21일까지)

7월21일(목)

- ⊙ BOJ, 금리 발표
- ⊙ 필라델피아 연은, 7월 제조업 경기전망 서베이 발표 (오후 9시30분)
- ⊙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금리 발표 (오후 9시15분)· 기자회견 (오후 9시30분)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한은 금통위 사상 첫 50bp 금리 인상 및 관련 기사

#### ◇ (칼럼) - 한은 총재의 명쾌한 가이드라인과 하반기 통화정책 분수령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7월13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부임 후 이제 막 석 달을 넘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전임 이주열 총재와 비교하기엔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창용 총재가 취임 초기에 보여주는 화법은 분명 이주열 전 총재와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

지나친 단순화일 수도 있지만 이주열 전 총재의 경우 기자간담회 등에서 직설적인 질문을 받을 때 여러 주장을 동시에 언급하며 곤란한 답변을 피해가곤 했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식이다. 그렇지 않을 땐 '이런저런 지적이 있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이라며 답변의 말미에 살짝 힌트를 흘리곤 했다. 발언마다 항상 해석의 여지를 남긴 이 총재는 기자들이 야속하게 느낄 정도로 쉽게 기사 헤드라인을 잘 내주지 않았다.

말의 서두에 중심 내용을 배치하는 화법을 선보이는 이창용 총재는 그런 의미에서 기자들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

일단 자신의 입장을 먼저 밝힌 후 논거가 되는 데이터와 반대되는 의견을 두루 언급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취임 초반 '원화 절하폭 심각하지 않다'거나 '빅스텝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등 통화, 외환정책 방향을 노골적으로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맥락 없이 보도되며 시장에 논란을 촉발하기도 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수석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지난 10여년을 보내며 조사, 전망을 주로 담당했던 경험이 이같은 두괄식 화법으로 이어진 것일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지표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경제전망을 할 때는 강력한 논거 제시와 함께 분명한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외적인 비판을 떠나 내부 평가라는 허들조차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 물가 피크아웃과 통화정책 휴지기 힌트

어쨌든 이 총재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답변의 서두만 꺾어도 보배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이번엔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지만 앞으로는 물가가 예상보다 더 급등하거나 경기가 급랭하지 않으면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 지금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의 하단으로 보이며 앞으로 한 두 번 더 인상하다고 해서 긴축은 아니라고 본다는 것, 물가 상승률이 6%를 넘는 상황에선 경기보다 물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거시경제 운용에 좋다는 것, 국내 물가는 3분기 말~4분기 초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리라는 발언이 한 묶음이다.

일단 시장이 외통수에 걸리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이달에 금통위가 빅스텝을 단행했는데 7월 물가가 6월 수준 이상으로 나오면서 금통위 의사와 관계없이 시장이 '또 한 번 빅스텝' 가능성을 반영할 가능성은 이 총재의 점진적 금리인상 발언으로 희석됐다.

7월 소비자물가가 6월 물가를 상회할 가능성을 감안하면 8월 금통위 회의에선 기준금리가 또 한 번 25bp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중요한 건 9월에 금통위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 물가의 피크아웃(peak-out)은 한국보다 빠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6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5월(8.6%)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라면 연방준비제도가 6월에 이어 이달에도 사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지만 충격요법이 이어질수록 경제주체들의 비명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9월 FOMC 회의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폭이 25bp까지 줄어든다면 금통위가 10월 회의때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문제를 놓고 조금 더 고민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는 한은 전망대로 국내 소비자물가가 9월 또는 10월경 피크아웃하기 위한 대내외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이야기긴 하다.

#### ▲내년 1%대 성장률 전망, 통화정책 분수령 될 수도

올해 마지막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 11월 금통위 회의때는 향후 통화정책의 큰 방향을 놓고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도 생겼다. 이 역시 이 총재의 발언 안에 힌트가 숨어 있다.

이 총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 중반으로 내년 성장률을 2%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야기하면서 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경우 정책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추이를 봤을 때 올해 성장률이 2%를 하회하기 위해선 하반기 엄청난 부진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 1%대 전망은 향후 글로벌 경기 부진 전망이 심화되면 주요 전제치의 소폭 조정만으로도 가능해진 게 사실이다.

통화정책 사이클의 전환을 의미하는 단서라는 측면에서 1%대 성장률 전망치 발표는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재료가 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관건은 기준금리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가 아니다. 미국 시장은 현재 최종 정책금리 수준을 3.3%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 한국시장의 컨센서스는 3~3.25% 정도인 듯 한데 앞으로 좀 더 내려갈 듯하다.

내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물가와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감안할 때 당장 시장금리 레인지 하단을 계속 낮추기 쉽지 않지만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된 후 빠르게 인하 사이클이 열리는 시나리오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국에서도 내년 2분기 금리인하폭이 나오는 게 최근 채권 랠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한은이 연말에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면 국내시장도 단순히 추가 금리인상 기대감의 소멸을 넘어 내년 금리인하를 선반영하기 시작할 수 있다.

물론 다른 금통위원들이 이 총재와 생각을 달리 할 수도 있고 물가나 경기지표도 예상과 달리 흘러갈 수도 있다.

다만 이 총재가 지난 5월 던진 빅스텝 언급이 현재화된 지금,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무시할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없을 것이다.

((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한은 금통위, 사상 첫 3연속·50bp 금리인상

서울, 7월13일 (로이터)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1.75% 수준인 기준금리를 2.25%로 50bp 인상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데 이어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까지 총 다섯 차례 인상을 단행했다. 금통위가 4월, 5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도, 한 번에 50bp 인상한 것도 모두 역사상 처음이다.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승세를 꺾기 위해 기준금리 연속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6월 중 기대인플레이션율도 3.9%까지 급등했고, 월간 상승폭(0.6%p)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달러/원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원대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 기대와 괴리가 큰 통상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는 자본 유출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금통위원들의 선택을 압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터통신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채권시장 전문가 32명 중 27명은 금통위가 이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50bp 인상하리라 전망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와 노무라, 유안타증권, 골드만삭스, HSBC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승규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 seunggyu.lim@thomsonreuters.com ; +822 6936 1466;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이 총재 “환율, 과거 위기 때와 달라... 엘런 장관과 한·미 통화스왑 논의 부적절”

서울, 7월13일 (로이터)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로 크게 상승했지만 과거 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마치고 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금리 역전 감내 수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환율이 1,300원을 넘어 굉장히 긴장하고 1997년과 2008년 때와 비교하지만 그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이 1,300원을 넘었지만 달러 강세에 주요 통화들은 훨씬 더 절하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유출돼 안전자산을 찾아가는 국면에서 달러를 제외한 통화들이 절하되는 국면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미 금리 갭 자체를 보는게 아니라 우리만 (자본이) 더 유출되는지 (원화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는지) 보고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물가와 환율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원화가 절하되면 수입 물가가 올라 물가에 좋지 않다"면서 "환율을 유심히 보는 이유가 안정 면에서도 보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19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통화스왑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미 통화스왑은 미국 재무부 업무가 아닌 연준의 역할로 옐런 장관과 이를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옐런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외환시장 안정 방안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통화스왑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은 이해하지만 과거 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또한 연준 입장에서 통화스왑 체결은 글로벌 금융시장 시각에서 논의되는 문제로 한국과 미국만의 별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 편집 임승규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칼럼) - 위기 트라우마와 '답정너'식 한·미 통화스왑 기대... 시장과 온도차 극명

서울, 7월1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환율이 2009년 위기 수준으로 오르자 한·미 통화스왑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외환당국 수장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라 달러/원 환율 상승 변동성이 커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환율 수준이 위기의 증표는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해도 별다른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한·미 통화스왑을 당장이라도 체결하지 않으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과거 한국 경제가 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마다 한·미 통화스왑이 만병통치약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낸 데 따른 학습효과가 워낙 큰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동안 환율이 1,300원을 넘은 적이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 차례 이외엔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 환율 수준 자체를 위기의 신호로 읽으면서 과거 위기 트라우마가 작동할 만하다.

하지만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현재 외환시장 내부 사정은 그렇게 긴박하지 않다. 물론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인 103억달러로 급증하고, 이에 더해 해외투자 확대와 외인 주식 자금 이탈 등으로 달러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역내 달러 사정은 이전보다 훨씬 뻣뻣해졌다.

정부에서도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할 만큼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당장 누그러질 기미는 없다. 특히 달러지수가 20년 만의 최고치로 오르는 등 강달러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 환율 수준 자체만으로 과거 위기를 소환시키는 것은 억지스럽다. 재정거래 성격의 외국인 채권투자로 달러/원 스왑포인트는 대체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데다 코로나 공포가 절정이었던 2020년 3월 250bp까지 벌어졌던 1년 구간 스왑 베이스 역전폭은 현재 70bp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 달러 유동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이다.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 공포를 경험했던 시중은행들이 더욱 보수적인 달러 유동성 관리에 나서 달러 유동성 방파제가 더욱 단단해졌다는 시장 평가도 있다.

최근 외환보유액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온다. 6월 외환보유액(4,383억달러)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235억달러 줄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외환보유액이 급감했다는 이유에서다. 강달러에 따른 외화 자산 평가액이 줄었을 뿐더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당국이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선 결과인데 어쨌든 외환당국의 총알이 급속하게 소진된다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

하지만 2008년 비해 현재 외환보유액은 2배가 넘고 2020년 3월 코로나 당시 때에 비해서도 6월 말 기준 400억달러 정도가 더 많다. 달러 공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다소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요즘 환율 관련한 우려 뒤에는 항상 한미 통화스왑이 절실하다는 결론이 어김없이 붙는다.

글로벌 고강도 통화긴축과 경기침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선제적으

로 달려 유동성을 미리 확충하자는 대비 차원일 수 있다.

하지만 마치 현재 외환시장을 위기 국면으로 인식하며 한·미 통화스왑을 당장에라도 체결하지 않으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시장심리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양국 간 통화스왑은 일방적인 한 국가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닌 양국의 실익이 부합했을 때 체결된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명쾌한 설명을 내놓았다.

"2008년, 2020년 통화스왑이 마치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 한 것으로 오해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미 연준이 상시 통화스왑을 하고 있는 금융허브 국가를 빼고 이머징 시장과 주요국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9개국 대상으로 했다. 통화스왑은 한국 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각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만의 통화스왑은 별도의 문제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들은 한·미 통화스왑이 언제 체결되느냐는 질문에만 매달렸다.

다음 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한을 앞두고 한·미 통화스왑 기대는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옐런 장관 간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표면적인 관심은 통화스왑이 언제쯤 체결될 것이냐로 국한되는 모습이다.

환율이 끝없이 고공 행진해서 실제 외환시장 내 본격적인 파열음이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 현재 시장참가자들의 심리는 과거 위기 트라우마를 소환할 만큼 불안하지 않다. 한미 통화스왑 체결만으로 시장이 안심하고 환호할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편집 임승규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해외전문가반응) 中 2분기 성장률 급격히 둔화... 추가 부양책 가능성은?

7월15일(로이터) -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로 산업 활동과 소비자 지출이 타격을 입으면서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한 것으로 15일 공식 데이터에서 확인됐다.

\* 주요 경제지표

2분기 GDP 전년비 +0.4% (전망 +1.0%)

2분기 GDP 전분기비 -2.6% (전망 -1.5%)

1-6월 고정자산투자 전년비 +6.1% (전망 +6.0%)

6월 소매판매 전년비 +3.1% (전망 0.0%)

6월 산업생산 전년비 +3.9% (전망 +4.1%)

1-6월 부동산 투자 전년비 -5.4% (1-5월 -4.0%)

6월 신규 주택 가격 전년비 -0.5% (5월 -0.1%) - 로이터 계산

다음은 15일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 장지웨이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경제가 2분기 바닥을 찍고 느린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다. 소매판매 반등이 고무적이고 견실한 신용 성장은 3분기 성장세가 회복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우려가 소비자 및 기업 심리를 저해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다."

"부동산 부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적절하고 신속히 제어하지 않을 경우 긴장이 금융부문과 가계로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가 3분기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예상된다."

◆ 싱자오핑 ANZ 선임 중국 전략가

"시진핑 주석이 우한 방문시 코로나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도록 방치하기보다 경제 발전에 미치는 일시적 영향을 견뎌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 약 5.5%의 달성에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다."

"당국은 이미 모든 부양 조치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부양책은 매우 제한적일 것 같다."

"낮은 기저효과 때문에 다음 두 분기 지표는 개선 신호를 보여줄 것이다. 하반기 2년 평균 GDP 증가율을 약 5.5%로 예상한다."

◆ 니시하마 도루 다이이치생명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인프라 투자가 성장을 주도했고, 앞으로도 중국 경제의 주요 동력일 것이다..5-6월 기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지만 중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문 앞에 서 있다. 2분기 연속 수축, 즉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완만한 성장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이제부터 성장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비교적 낮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어 중국인민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는 장벽이 높다."

◆ 네이션 차우 DBS 이코노미스트

"소매판매 급증은 서프라이즈였지만, 고용시장이 상당히 약하다는 점을 보면 강한 반등세가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다..주택가격 하락도 걱정이다. 하반기 소비는 안정될 수 있지만 V자형 반등은 아닐 것이다..결론은 고정자산 투자와 인프라 투자를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 셴 캘로우 웨스트팩 선임 통화 전략가

"중국 지표에 대한 환율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비관론자들은 2분기 GDP의 하방 서프라이즈에, 낙관론자들은 6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의 뚜렷한 회복세에 주목할 것이다."

◆ 레이 아트릴 국립호주은행 수석 통화 전략가

"우리는 여전히 하반기에 위안 절하가 용인 또는 장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예를 들어 원화나 엔화 약세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중국 입장에서는 경쟁력 손실이 달갑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지속한다면 달러/위안이 하반기 6.75-7로 상승하리라고 본다. 오늘 지표에서 이런 전망을 약화시킬 만한 것은 없었다."

◆페이찬 리우 넷웨스트마켓츠 중국 이코노미스트

"중국인민은행이 재정 완화에 대해 조율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동성 투입과

금리 인하 측면에서 모두 완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폭은 완만할 것으로 보인다."

◆ 켈 청 미즈호뱅크 수석 아시아 FX전략가

"경제 전반에 대한 하방 압력이 엄청나다.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이 힘들어 보인다. 당국은 하반기 선별적 완화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 같다. 은행 시스템 내 유동성이 풍부해 포괄적 완화 가능성은 다소 낮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15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1(%)
달러 대비	1,326.1	-1.9%	-10.4%	-8.6%	유로	1.0089	-0.9%	-11.3%	-6.9%
100엔 대비	952.2	-0.1%	8.5%	+1.8%	엔	138.55	-1.8%	-16.9%	-10.3%
유로 대비	1,331.0	-0.9%	1.6%	-1.9%	위안	6.7580	-0.9%	-6.0%	+2.7%
위안 대비	195.23	-0.9%	-4.2%	-11.1%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1(%)	다우존스	31,288.26	-0.2%	-13.9%	+18.7%
코스피	2,330.98	-0.8%	-21.7%	+3.6%	나스닥	11,452.42	-1.6%	-26.8%	+21.4%
코스닥	762.39	-0.5%	-26.3%	+6.8%	S&P500	3,863.16	-0.9%	-18.9%	+26.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MSCI APxJP	507.14	-3.5%	-19.5%	-4.9%
국고채 3Y	3.205%	-11.0bp	140.7bp	+82.2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1(bp)
국고채 5Y	3.271%	-7.4bp	126.0bp	+67.6bp	미국채 2Y	3.130%	3.0bp	240.0bp	+61.0bp
국고채 10Y	3.242%	-11.8bp	99.2bp	+53.7bp	미국채 10Y	2.930%	-15.0bp	142.0bp	+59.5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1(%)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1(bp)
유가(WTI)	97.57	-6.9%	29.3%	+55.8%	한국 5Y	52.6bp	-1.4bp	30.6bp	-0.7bp
금(현물)	1,707.78	-2.0%	-6.6%	-3.6%	일본 5Y	32.1bp	-0.1bp	14.5bp	+2.1bp
TR상품지수	3,521.84	-0.4%	5.5%	+24.6%	중국 5Y	83.1bp	-1.5bp	41.9bp	+12.1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